

2018년 시행 고3 9월 모평 국어 해설

본 해설은 현직 선생님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손수 만드신 재창작물입니다.
따라서 본 해설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1	②	2	⑤	3	①	4	②	5	④
6	④	7	⑤	8	③	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①
26	③	27	③	28	③	29	②	30	③
31	①	32	⑤	33	⑤	34	④	35	②
36	①	37	④	38	③	39	⑤	40	⑤
41	⑤	42	①	43	④	44	⑤	45	①

[1~2] 화법
[지문 분석]

(가) 안녕하세요?(높임 표현) 이번 학기 프로젝트 과제는 ‘숨어 있는 들꽃의 재발견’(발표의 핵심 화제)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여 주며)(시각적 자료 활용,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청중을 발표에 집중시킴) 여기 우리 모두의 발표 차례를 봐 주세요.(발표 순서 제시, 청중을 집중 시킴) 우리 모두의 1차 탐구 과제는 ‘들꽃의 아름다움’이고, 2차 탐구 과제는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1차 탐구 과제 발표(발표의 내용)를 하겠습니다.

(나) 여러분,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꽃」(공통된 경험)에서 들꽃이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시킴) (청중의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청중과의 소통 및 교감, 비언어적인 표현 활용) 네, 그렇죠.(청중의 대답에 대한 반응) 시멘트 틈을 뚫고 피어나 주인 공에게 삶의 희망을 일깨워 준 민들레꽃이 있었죠.(「옥상의 민들레꽃」의 내용) 그리고 여기 이것은 (사진을 보여 주며)(시각적 자료 활용,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청중을 발표에 집중시킴) 제가 산책을 하다가 보도블록 틈에 수줍은 듯 피어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 찍은 제비꽃 사진이에요.(발표자의 경험) 이처럼 우리는 기대치 않은 곳에 핀 들꽃을 발견할 때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세히 보게 됩니다.

(다) 그럼 우리는 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걸까요?(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시킴) (동영상을 보여 주며)(시각적 자료 활용,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청중을 발표에 집중시킴) 이 높은 산 위에 부는 세찬 바람 소리 들리시죠?(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 시킴) 이곳을 자세히 보세요.(완곡한 명령) (화면을 가리키며)(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시킴) 여기 짙은 자주색의 들꽃 보이시죠?(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시킴) 바로 이곳, 고산 지대에서 피는 고려엉겅퀴꽃입니다. 이런 곳(고산 지대)은 바람뿐 아니라 자외선도 강해 꽃이 자라기 힘든데요. 그래서 고산 지대에서 피는 들꽃 중에는 빛깔이 짙고 크기는 아담한 것(고산 지대에 피는 꽃의 특징)이 많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걸러 내며 짙은 색의 꽃잎이 되었고(꽃의 색이 짙은 이유) 강한 바람을 견디며 아담한 크기의 꽃이 되었

습니다.(꽃의 모양이 아담한 이유) 우리는 바로 여기서 들꽃의 강인한 생명력(아름답게 느끼며 감탄하는 이유)을 느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을 검색한 화면을 보여 주며)(시각적 자료 활용,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청중을 발표에 집중시킴) 여기 이 들꽃들도 아담하면서 색이 선명하죠?(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시킴) 고산 지대에서 피는 금강초롱꽃과 동자꽃입니다.(고산 지대에 피는 또 다른 꽃)
(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완곡한 명령) (슬라이드를 보여 주며)(시각적 자료 활용,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청중을 발표에 집중시킴) 도표(슬라이드에서 활용한 매체의 종류) 왼쪽 부분은 들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이 붙은 꽃들입니다. 금강초롱꽃, 숲바람꽃 등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시킴) 그런데(전환) 도표 오른쪽의 이름들을 보세요. 예컨대 도둑놈의갈고리꽃을 보면, 들꽃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도둑놈’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놀랍지 않으세요?(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을 집중시킴, 대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들꽃이 이렇게 명명된 이유를 알아보고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보는 내용(다음 발표의 주제, 2차 탐구 과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발표
- 주제: 들꽃의 아름다움
- 특징
 -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움.
 - 질문을 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함.
 - 발표의 순서를 먼저 제시하여 청중이 능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함.

1. <답> ②

<정답률> 94%

<정답 풀이>

② (나)의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들꽃이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내용이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③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④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하는 방식은 나와 있지 않다.

⑤ 이 발표에서는 청중이 질문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TIP>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선택지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답> ⑤

<정답률> 89%

<정답 풀이>

⑤ 슬라이드의 도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들꽃의 아름다

운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이고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2차 탐구 과제는 들꽃이 이름이 이렇게 명명된 이유와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보는 것이지 들꽃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슬라이드를 통해 탐구 과제와 차례를 설명하고 오늘은 1차 탐구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② 발표자가 산책하다 찍은 보도블록 틈에 핀 제비꽃 사진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③ 동영상을 통해 높은 산 위에 부는 세찬 바람 소리를 들려주며 고산 지대의 생태 환경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금강초롱꽃과 동자꽃의 아담하면서 색이 선명한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 주며 고산 지대 들꽃의 특징을 뒷받침하고 있다.

<TIP>

발표와 관련한 매체의 이용 계획이 실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주어진 계획안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야 한다.

[3~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사회자 : 지금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십시오.(논제 소개, 토론의 시작 알림, 토론의 순서 안내)

찬성 1 :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찬성 측이 생각하는 학생회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찬성 측 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찬성 측 주장)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결선 투표제의 개념)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①)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②)

사회자 :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반대 신문식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2 :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까요?(찬성 측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

찬성 1 :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

사회자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합니다.(반대 측 주장)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단순 다수제의 개념)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찬성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다수제는 투표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

문에 후보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반대 측이 생각하는 단순 투표제의 장점, 타당성 부족) 무엇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시행하기 번거롭다는 것입니다.(결선 투표제의 단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을 또 내야 하고, 투표소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결선 투표제가 번거로운 구체적인 이유)

사회자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찬성 1 :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반대 측 입론 내용 확인) 결선 투표제도 1차 투표는 단순 다수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반대 측 주장을 통해 찬성 측 주장의 합리성 강조)

반대 1 :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더 민주적일 수도 있겠네요.(찬성 측 반대 신문이 기대한 답)

사회자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결선 투표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결선 투표제의 기대 효과)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 측 주장의 근거, 결선 투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근거가 없어 타당성이 부족함)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민주적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하십시오.

찬성 1 : 반대 측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셨는데,(반대 측 주장 확인) ○○고등학교처럼 투표 방식을 변경하여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투표소 재설치 등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다른 학교의 사례 제시)

[지문 확인] (가)

- 갈래: 토론
- 주제: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특징
 - 반대신문식 토론으로 입론 다음에 반대 신문 단계가 있다.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하고 있다.

[지문 분석] (나)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토론의 목적)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기사문 작성의 이유)

찬성 측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찬성 측의 주장) 그런데 사회 시간에 배운 A 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했지만 1차 투표율보다 결선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4%였다. 결국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34%만의 대표성을 얻은 것이다.(자신의 배경지식 활용, 근거)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찬성 측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 한편, 반대 측은 입론에서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나,(반대 측의 주장)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설득력이 부족한 이유)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 학교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

지만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토론의 배경)이 발생하여 이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반대 측은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반대 측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

토론 단계에 따른 발언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3문단에서 다룰 내용), 입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입론에서 토론자가 할 일) 이 토론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론 단계에 적합하다. 한편,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상대측과는 달리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이 토론을 보면서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능동적인 듣기의 자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발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활동) 국민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관련 서적을 찾아서 알게 된 내용)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을 선출한다. 따라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답)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자신의 의견)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대표성 높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대표자를 선출할 때 투표자가 가져야 할 인식)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토론의 의의) 학교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토론을 통해 느낀 점)

[지문 확인] (나)

- 갈래: 기사문 초안
- 주제: 대표성을 가진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토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
- 특징
 -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3. <답> ①

<정답률> 95%

<정답 풀이>

① 찬성1의 입론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와 반대 1의 입론에서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학생회장 선거 홍보 방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찬성 측은 학생회장 선거에 새로운 투표 제도인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은 결선 투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④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무효표를 줄이기 위한 선거 홍보 기간 연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찬성 측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 측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TIP>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좋다. 서로의 주장을 재확인하거나 근거를 반박하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가 혼동될 수 있다. 주의를 기울이며 읽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4. <답> ②

<정답률> 86%

<정답 풀이>

②반대 1은 상대방의 의견 일부는 공감하면서, 상대방이 제기한 해결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찬성 1이 말한 내용을 지적하며 찬성 1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

③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라고 상대의 말 일부를 인용하여 자신의 논지에 활용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반론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찬성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⑤ 투표 방식 변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IP>

말하기 방식의 문제는 선택지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문에서 말하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읽고 확인한 후에 정답인지 아닌지 선택한다.

5. <답> ④

<정답률> 93%

④ 찬성 1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제시되어 있지만, 입론에서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답 풀이>

① 투표율이 낮아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 상황을 설명했다.

② 결선 투표제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결선 투표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투표율이 높아지고,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TIP>

화자의 발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제시한

것들을 화자의 발화에서 실제 언급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6. <답> ④

<정답률> 93%

<정답 풀이>

④ 객관적인 측면에서 찬반 양측의 발언을 평가하고 있지만,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토론회가 대표성 높은 학생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토론회가 개최된 목적과 관련하여 글을 쓴 동기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찬성 측의 발언 내용에 대해 사회 시간에 배운 배경지식을 가지고 찬성 측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4문단에 토론을 들으면서 생긴 의문점에 대해 관련 서적을 찾아 정리한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⑤ 6문단에서 토론회의 의의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토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TIP>

글쓰기 계획이 실제 글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계획한 요소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특히 지문의 특정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7. <답> ⑤

<정답률> 87%

<정답 풀이>

⑤ 3문단의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지만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A나라의 예를 들어, 찬성 측의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유로 반대 측 입론의 설득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반대 측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했음을 제시한다.

④ 3문단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입론 단계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TIP>

자신의 글을 점검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토론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하나하나를 (나)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확인한다. 평가의 근거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선택지는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다.

[8~10] 작문

[지문 분석]

(가) [학생의 생각 :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 우리 동아리의 특색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퍼네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 ㉣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가입 후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하지 않을까?

(나) [학생의 초고]

그동안 봉사 활동을 해 온 우리 동아리(동아리의 주요 활동)는 다른 봉사 동아리와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퍼네이션과 같은 기부 활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 봉사 동아리와의 차이점)

‘퍼네이션(funation)’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결합한 말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 활동입니다.(퍼네이션의 개념) 예를 들어(사례 제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체험하며 기부금을 모으는 퍼네이션입니다. 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가 다음 순번을 지목하여 릴레이로 참여하는 퍼네이션인데,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만(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이런 퍼네이션 때문에 요즘은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퍼네이션의 효과)

그런데 학생들은 대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기부를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기부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기부를 하지 않는 원인)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봉사의 진정한 의미)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의 마음(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도 나눔의 마음(동아리 선발 기준)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기부를 위한 동아리의 노력) 최근에는 급식의 잔반을 줄여 절약한 잔반 처리 비용을 결식아동에게 기부하는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구체적 사례 제시)

여러분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퍼네이션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퍼네이션 홍보를 하며 나눔의 경험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가입 권유)

[A]

[지문 확인]

- 갈래: 홍보문
- 주제: 봉사 동아리의 가입을 권유함.
- 특징

지시 대명사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 이것, 그것, 저것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예 여기, 거기, 저기
인칭 대명사	1인칭 화자를 가리킴	예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朕)
	2인칭 청자를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3인칭 3자를 가리킴	예 그, 이분, 저분, 그분, 이이

미지칭	특정 대상○ + 정보×	예 누구냐 넌?
부정칭	특정 대상× + 정보×	예 누구든지 도전해라!
재귀칭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예 애들이 어려서 <u>저희</u> 밖에 몰라요.

③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양수사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어 계열: 1~99까지 예 하나, 둘, 셋 한자어 계열: 모두 가능함. 예 일, 이, 삼
서수사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어 계열: '-째'를 붙임. 예 첫째, 둘째 한자어 계열: '제'를 붙임. 예 제일, 제이

(2) 용언

개념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함.	
동사, 형용사 구분	동사	형용사
	선어말 어미 '-ㄴ-/-는-' 결합	결합×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결합	결합×

① 동사 :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자동사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미침	예 뛰다, 걷다, 가다, 놀다
타동사	움직임이 목적어에 미침	예 잡다, 누르다, 건지다
주동사	동작을 스스로 행함	예 먹다, 앓다
사동사	남에게 어떤 동작을 시킴	예 먹이다, 앓히다
능동사	스스로의 힘으로 함	예 잡다, 밀다
피동사	남의 동작이나 행위에 당함	예 잡히다, 밀리다

② 형용사 :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성상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예 고요하다, 예쁘다
지시 형용사	지시성을 나타냄	예 이리하다, 그러하다

(3) 수식언

-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함

① 관형사 :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개념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 주로 명사를 꾸며 주는 단어	
종류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킴. 예 그 사람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상 관형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줌. 예 새 책은 제목이 무엇이더라?
	수 관형사	수량이나 순서라는 수 개념을 나타냄. 예 세 사람, 연필 다섯 자루

② 부사 :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말(부사나 관형사를 꾸미기도 함)

개념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는 단어		
종류	역할 분류	성분 부사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함. 예 올해는 눈이 참 많이 내린다.
		문장 부사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함. 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접속 부사	앞말과 뒷말,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예 날씨가 좋지 않았다. <u>그러나</u> 비는 내리지 않았다. 예 정치, 경제 및 문화
의미 분류	성상 부사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을 수식함. 예 올해는 눈이 참 많이 내린다. 예 데굴데굴 굴러서 사뿐사뿐 넘어라.	
	지시 부사	특정 대상을 가리킴. 예 <u>이리</u> 오지 말고 <u>그리</u> 가거라.	
	부정 부사	부정의 뜻을 나타냄. 예 <u>못</u> 먹는 것이 아니라 <u>안</u> 먹는 것이겠지.	

(4) 관계언(조사)

개념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		
종류	격조사	-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함	
		종류	형태
		주격	이/가, 께서, 에서
		목적격	을/를
		보격	이/가
		관형격	의
		부사격	에, 에서, 에게, 으로 등
		호격	아, 야, 이어
	서술격	이다	
접속	두 단어를 이어 주는 구실(와/과, 랑/이랑, 하고)		

조사	예 봄이 되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보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5) 독립언(감탄사)

개념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면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비교적 독립성이 있는 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지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함. 실제 발화 상황에서 독백이나 대화에 많이 사용됨.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워 문장의 처음, 중간, 끝 아무 데나 놓여 쓰임. 예 야, 네, 아니오, 우와, 앓, 아이쿠

11. <답> ⑤

<정답률> 69%

<정답 풀이>

먼저 <보기>를 정리해 보자.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다. 명사/명사/조사/동사/형용사/명사/조사/수사/조사/동사

⑤ '즐거운'은 '즐겁다'의 활용형으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④ 정리된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TIP>

단어의 품사를 묻는 문제이다. 품사를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문장 성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여 공부하자.

12. <답> ④

<정답률> 87%

<정답 풀이>

④ [A]의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없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이지만 특수하게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예쁘다'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예뻐라', '예쁘자'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형용사는 명령형·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예쁘려고', '예쁘러'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형용사는 의도·목적어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무가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길다.'의 '길다'는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나무가 쑥쑥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잘 길다.'의 '길다'는 문장에서 선어말 어미 '-느'와 결합한 문장이 비문이 아님을 통해 동사임을 알 수 있다.

<TIP>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같은 단어라도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면 동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몇 가지 단어를 통해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암기하자. 예 빛이 밝다(형용사), 날이 밝다(동사)

13번 문법 이론: 로마자 표기법

•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백마 [뱅마]	Baengma	신문로 [신문노]	Sinmunno	종로 [종노]	Jongno
왕십리 [왕십니]	Wangsimni	별내 [별래]	Byeollae	신라 [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	------------	--------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해돋이 [해도지]	haedoji	같이 [가치]	gachi	굳히다 [구치다]	guchida
--------------	---------	------------	-------	--------------	---------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예 목호(Mukho) / 집현전(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13. <답> ①

<정답률> 82%

<정답 풀이>

① 같이[가치]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이고, 땀받이[땀바지]도 구개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로마자 표기도 gati가 아니라 gachi이므로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오답 풀이>

② 잡다[잡따]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삭제[삭제]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는 japtta가 아니라 japda이므로 로마자 표기에는 된소리되기가 반영되지 않았다.

③ 놓지[노치]에서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데, 닳아[다라]에서는 ㅎ탈락이 일어난다. 놓지[노치]에서 일어나는 자음 축약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어 nochi 로 표기되었다.

④ 맨입[맨닙]과 한여름[한너름]에서는 모두 ㄴ첨가가 일어나며, maennip을 보면 ㄴ첨가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백미[뱅미]와 밥물[밤물]에서는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며,

baengmi를 보면 비음화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IP>

로마자 표기법은 음운의 변동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그러므로 음운의 변동을 먼저 정확히 공부한 후에 로마자 표기법에서 음운 변동을 예외적으로 다루는 경우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 14번 문법 이론: 중세 국어

-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

높임 대상	선어말 어미(환경)	예
주체	-시-(자음 어미 앞)	가 <u>시</u> 니, 미 <u>드</u> 시니
	-샤-(모음 어미 앞)	가 <u>샤</u> , 가 <u>샤</u> , 정(定)하 <u>샤</u>
상대	-이-(평서형 어미 앞)	하 <u>느</u> 니 <u>인</u> 다
	-잇-(의문형 어미 앞)	하 <u>느</u> 니 <u>잇</u> 가
객체	-습- (어간 끝소리가 ‘ㄱ, ㅂ, ㅅ, ㅎ 일 때)	막 <u>습</u> 거늘, 벗 <u>습</u> 더니
	-줍- (어간 끝소리가 ‘ㄷ, ㅌ, ㅈ, ㅊ 일 때)	듣 <u>줍</u> 고, 마 <u>줍</u> 더니
	-습- (어간 끝소리가 올림소리일 때)	보 <u>습</u> 건대
	예) 너희 스승니를 보습고져 하나니 → 목적어인 ‘스승님’을 높임 世尊의 안부 묻습고 → 부사어인 ‘세존’을 높임	

14. <답> ③

<정답률> 76%

<정답 풀이>

③ <보기>의 첫째 예문에서 ‘스바’라는 표현은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것인데,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왕이 부처께 ~ 마음을 내어’라는 내용이므로 ‘내어’가 높이는 객체는 부사어인 ‘부처’이다. 한편, 어간 ‘듣-’의 말음은 ‘ㄷ’이므로 <보기>의 표에 의하면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줍-’이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면 ‘-즈븍-’으로 실현된다고 하였으므로 ㉠에 들어갈 말은 ‘듣즈븍며’이다.

<TIP>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오는 국어사 관련 문제는 지문이나 <보기>의 정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지문이나 <보기>를 읽고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들을 골라낸 후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를 푸는 요령은 비슷하므로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좋다.

▣ 15번 문법 이론: 문장의 짜임

- 겹문장

(1) 이어진 문장

종류	개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의 문장 • ‘나열(-고, -며), 대조(-나, -지만), 선택(-든지) 등’ <p>예) 은수는 영화를 보았고, 영미는 연극을 보았다.(나열) 예) 은수는 영화를 보았<u>지만</u>, 영미는 연극을 보았다.(대조) 예) 영화를 보든<u>지</u> 연극을 보든<u>지</u> 결정해라.(선택)</p>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종속적인 관계의 문장 • ‘원인(-아서/-어서), 배경(-는데), 조건(-으면), 의도(-려고), 양보(-지라도) 등’ <p>예) 비가 와<u>서</u> 길이 질다.(원인) 예) 친구와 만나<u>려고</u> 외출을 했다.(의도) 예) 공부가 어려울<u>지라도</u>, 포기하지 않는다.(양보)</p>

(2) 안은문장 : 다른 문장의 절을 형식으로 안고 있는 겹문장.

명사절을 안은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형 어미 ‘-(으)ㄴ’, ‘-기-’ 등으로 실현됨. •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절을 안은문장. <p>예) <u>그가 범인임</u>이 밝혀졌다. 예) 나는 <u>테니스 치기</u>를 좋아한다.</p>
관형절을 안은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등이 붙어 실현됨. •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문장. <p>예) 우리는 <u>민희가 결혼한다</u>는 소식을 들었다. 예) 그것은 <u>내가 입던</u>(-은, -는, -을) 옷이다.</p>
부사절을 안은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접사 ‘-이’, 어미 ‘-게, -도록, -(아/어)서’ 등이 붙어 실현됨. • 부사어 기능을 하는 절을 안은문장. <p>예) 우리는 <u>돈도 없이</u> 여행을 떠난다. 예) <u>감기 안 걸리게</u> 옷을 단단히 입자. 예) 우리는 <u>그가 지나도록</u> 길을 비켜 비켜 주었다.</p>
서술절을 안은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은문장. <p>예) 정아가 <u>얼굴이 예쁘다</u>.</p>
인용절을 안은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 고’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p>예) 철수가 “<u>선생님, 어디 가세요?</u>”라고 물었다.(직접 인용) 예) 그 사람은 <u>자기가 학생이라고</u> 주장하였다.(간접 인용절)</p>

15. <답> ④

<정답률> 62%

<정답 풀이>

④ ㉠에서 내가 ‘늘 쉬던’은 관형사형 어미 ‘-ㄴ’으로 끝났으므로 관형절이다. ㉡은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라는 문장에

내가 '늘 (공원에서) 쉬었다.'라는 문장이 안기면서 공원에서라는 부사어가 생략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자식이 건강하기'는 명사형 어미 '-기'로 끝났으므로 명사절이다. ㉡은 '부모님은~를 바란다.'라는 문장에 '자식이 건강하다.'라는 문장이 안긴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② ㉢에서 '연락도 없이'는 부사형 어미 '-이'로 끝났으므로 부사절이다. ㉣은 '그 친구는 그곳에 안 왔다.'라는 문장에 '(친구는) 연락도 없다.'라는 문장이 안기면서 '친구는'이라는 주어 생략되었다.

③ ㉤에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은 명사형 어미 '-음'으로 끝났으므로 명사절이다. ㉥은 '동생은~을 깨달았다.'라는 문장에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문장이 안긴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⑤ ㉦에서 '아주 어려운'은 관형사형 어미 '-ㄴ'으로 끝났으므로 관형절이다. ㉧은 '그 사람들은 과제를 금방 끝냈다.'라는 문장에 '(과제가) 아주 어렵다.'라는 문장이 안기면서 '과제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TIP>

문장의 짜임을 묻는 문제이다. 문장의 짜임은 문장 성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서술어의 개수(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파악하면 몇 개의 문장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장 안의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 조사나 어미는 어떤 것과 결합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내신에서도 자주 접한 개념이지만 수능에서도 자주 다루므로 꼭 정리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16~20] 문학-융합(권호문, '한겨십팔곡'(고전 시가) / 박재삼, '추억에서'(현대시) /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리듬(이론))

[지문 분석] (가)

<제1수>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유교적 가치)**뿐이로다. **이 두 일(충효)**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설의법)**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황황(十載遑遑)(10년 동안 마음이 급해 허둥지둥함)**하노라.

[풀이]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주제]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제2수>

계교(計巧) 이렇더니 **공명(유교적 가치인 벼슬, 충)**이 늦었세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하여 여공불급(如恐不及)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관습적 표현) 못 이룰까 하여라.(안타까움)

[풀이]

서로 견주어 살펴봄이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이리저리 공부하러 가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주제] 등용의 좌절과 안타까움

<제4수>

강호(자연, 대유법)에 놀자하니 **성주(聖主)(임금)**를 바리레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벼슬을 하는 일) 소락(所樂)(자연을 즐기는 일)**에 어귀예라.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갈등)

[풀이]

자연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주제] 벼슬에 대한 욕망과 자연 사이의 갈등

<제8수>

出(출)하면 致君(치군)澤民(택민)(벼슬아치로서 할 일) 處(처)하면 釣月(조월)耕雲(경운)(자연에 묻혀서 할 일)

明哲(명철) 君子(군자)는 이랄사 즐기나니

하물며 **富貴危機(부귀위기) | 라(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 빈천거(貧賤居) 하오리라.(안빈낙도하겠다는 화자의 결심)**

[풀이]

속세에 나가면 임금을 섬기고 백성에게 은덕이 미치게 하고, 들어오면 달빛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받을 간다네.

충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럴수록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태하니** 가난한 삶을 살아가리라

[주제] 자연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

<제16수>

행장(行藏) 유도(有道)하니 바리면 **구태 구하라.(설의법)**

산지남(山之南) 산지북(山之北) **병들고 늙은 날(화자의 처지)**를 뒤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하나노.

[풀이]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감에도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라.

산 남쪽 물 북쪽에 병들고 늙은 나를

뒤라서 나라 구할 보물 가졌다고 오라 말라 하느냐?

[주제] 벼슬에서 물러나는 도

<제17수>

성현의 가신 길(안빈낙도)히 만고에 한가지라.

(자연에)은(隱)커나 (속세에) 현(見)커나 **도(道) | 언디 다르리.(설의)**

일도(一道) | 다르디 아니커니(자연에든 속세든 도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인식) 아무덴들 엇더리.(설의)

[풀이]

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숨거나 나아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한 가지도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하리.

[주제] 어느 곳에 거하든지 도를 추구하겠다는 다짐

▣ 핵심 정리

- 연대: 조선 전기
- 갈래: 전 19수의 연시조, 평시조
- 성격: 유교적, 교훈적, 은일적, 전원적
- 표현: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과장법, 열거법
- 체재: 벼슬길과 은거
- 구성: 작품 전체가 현실세계로부터 이탈하여 강호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계기에 의하여 단계적·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 주제: 유교적인 깨달음의 실천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소망
- 특징: 한정가의 성격을 띠지만, 입신양명에 대한 작가의 미련이 담겨 있음. 한자 표현이 많으나, 단아하고 우아한 풍취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강호한정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맹사성이나 윤선도의 작품과는 다른 기품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체를 노래한다기보다는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심회가 드러나 있거나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고 자연의 감상을 통해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 의의: 퇴계 이황의 영남 학풍을 계승, 강호가도의 맥을 잇고 있고, 인간적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제시됨
- 작가의 삶과 창작 배경: 권호문은 퇴계 이황에게 수학하고 그의 문인과 함께 강학했으며 퇴계의 사후, 그의 문집을 정리한 인물이다. 세간에서 그를 퇴계의 문인이라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30세에 진사(進士) 회시(會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조식, 이항처럼 평생 동안 처사적 삶을 지향한 선비가 매우 많았다. 그것은 당대 사대부들이 그 시대를 혼탁하다고 여겨 출사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제8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드러난다. 이 작품은 이처럼 출사를 꺼리는 상황에서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한 것인데,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자연에 은거할 것인가의 갈등에서 자연에 은거할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자연과의 몰아일체적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출전-송암집

[지문 분석] (나)

진주 장터(구체적 지명, 현장감, 향토성) 생어물전(어머니의 삶의 터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하강적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쓸쓸하고 어두운 분위기, 목적어로 행을 마무리 해 여운을 줌)
울 엄매(향토적 분위기의 방언, '올다'의 어간 '울-'을 통해 어머니의 서글픈 삶을 드러냄)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어머니의 생계 수단, 장사가 잘 되지 않음)의
빛 발하는 눈깔들(은전을 연상시킴)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한스러운 삶의 주요 원인, 의문형으로 감정 절제)
울 엄매야 울 엄매.(반복, 어머니의 고달픈 강조)

별받은 또 그리(그리도) 멀리

우리 오누이(화자와 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가난)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반복, 감각적 이미지, 의문형으로 감정 절제)

진주 남강(구체적 지명, 현장감, 향토성) 맑다 해도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어머니의 고단한 삶)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화자, 의문형으로 감정 절제)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어머니의 눈물)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의문형으로 감정 절제)

▣ 핵심 정리

- 갈래: 서정시, 자유시
- 성격: 서정적, 회상적, 정한적(情恨的), 애상적, 영탄적, 향토적
- 율격: 내재율(7·5조의 변형)
- 어조: 회상적, 애상적, 영탄적
- 체재: 어릴 적 추억 속의 어머니 모습
- 주제: 어머니의 한스러운 모습. 유년기의 추억 속에 각인된 어머니의 삶과 한(恨)
- (■ 특징: ① 섬세한 언어와 서정적 감각 ② 대상의 변화(어머니 - 오누이 - 어머니)
- 출전 : 「사상계」 (1961) <춘향이의 마음>(1962)

▣ 작품 구성

1~6행 :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간결하게 드러난다. 그의 어머니는 진주 장터의 생어물전에서 생선을 팔았다. 해가 다 지고 어둠이 깔리는 어스름 때 아직 다 팔지 못하고 남은 몇 마리 고기들의 반짝이는 눈알들..... 여기에서 그는 어머니의 손 닿을 수 없는 한을 생각한다. 어머니는 이러한 괴로움과 한을 어린 아들에게 내색하지 않을 터이지만, 그는 팔다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깊은 한을 느끼고는 하였다.

7~9행 :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어두운 방 안에서 손 시리게 떨던 오누이의 모습이 나타난다. 날은 저물어 별이 총총한 밤, 추위에 떨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오누이를 위하여 어머니는 먼 장터로부터 밤길을 걸어 돌아왔을 것이다.

10~15행 : 다시 어머니의 모습으로 초점을 옮겨 간다. 그의 어머니는 진주 남강이 맑다고 해도 어슴푸레한 새벽 또는 별빛에나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는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에서 어머니의 슬픔에 젖은 눈빛을 연상한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슬픔을 억제한, 그러나 소년 시절의 그에게 무엇보다도 가슴 깊이 들어와 박혔던 한스런 눈빛이다.

▣ 시상의 전개

이 시는 시인의 추억, 즉 가난했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었던 옛날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어물전의 생선 몇 마리, 별, 용기전의 용기와 같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하여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기억을 재생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상은 ‘어스름’으로 표현된 생활의 각박함이나 슬픔 등의 부정적 형상만이 아니라 별빛, 남강의 맑은 물, 반짝이는 웅기 등 점점 분명하고 밝고 긍정적인 형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이런 내적인 장치 외에도 ‘울엄매야 울엄매’, ‘오명 가명’,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운율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정서와 시적 이미지가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상도 사투리의 구수함이 향토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가’, ‘~꼬’로 표현된 종결 어미는 영탄적 분위기와 함께 가정(假定)의 형태로 끝내는 것이 특색이다.

▣ 종결어미의 정서 표현

이 시의 각 연(聯)이나 행(行)의 종결 어미를 보면 ‘~다’가 전혀 없다. ‘~을’, ‘~가’, ‘~꼬’로 되어 있어서 직설적인 단정(斷定)인 ‘~다’를 피하고 있다. 즉 영탄적인 분위기와 함께 일종의 가정(假定)이나 의문형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한스러운 회상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지 않았고, 제2연 4행의 ‘울엄매야 울엄매’라는 어머니를 부르는 울음 섞인 목소리도 지나친 감상(感傷)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문 분석] (다)

시의 **원심력(비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리듬의 기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음수율)**이건 **음의 보폭(음보율)**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하는 방법)**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외형률)**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내재율)**을 창출한다. **가령(예시)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시조가 가진 외적 규율의 특징)**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시의 구심력을 만드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떨워랑 / 드래랑 / 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여”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전 시가의 리듬이 아직 남아 쓰이고 있음)**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한 경우)**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선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강하든 약하든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

[지문 확인]

- 갈래: 설명문(문학 이론)
- 주제: 고전 시가와 현대시의 리듬
- 특징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시에서의 리듬을 만드는 방법과 리듬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16. <답> ①

<정답률> 86%

<정답 풀이>

① (가)의 <제16수>의 ‘뉘라서~오라 말라 흥느뇨’, <제17수>의 ‘~아무 텐들 어떠리’와, (나)의 2연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3연 ‘손 시리게 떨던가’, 4연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등에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 있고,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대화하는 방식이라면 화자와 청자가 드러나야 하는데 두 작품 모두 특정 대상과 말을 주고받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구체적 공간 제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경우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오누이의 고달픈 현실을 탈속적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나)는 ‘떨던가’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소재로 등장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 (나) 모두 의성어, 의태어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의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동사이다.

<TIP>

서로 다른 작품들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특징들을 보고 답이 될 수 없는 선택지를 먼저 가려낸 후 남은 선택지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보통 특징은 선택지의 앞에 있으며 효과는 뒤에 나오는데 특징을 위주로 답을 찾으면 된다.

17. <답> ②

<정답률> 60%

<정답 풀이>

② ‘성현의 가신 길’은 세상에 나아가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모두 한 길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공명을 이루기 위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부급동남’은 벼슬에 나아가는 것(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성주를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③ ‘부귀 위기(부유함과 귀함은 위험한 일)’이라는 설명은 강호(자연)를 추구하는 화자의 의도와 연결된다.

④ ‘기로’는 ‘출’과 ‘은’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갈등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도 하나의 도로 이어진다는 의미의 ‘일도’를 생각함으로써 해소되고 있다.

⑤ 부귀를 멀리하며 가난하고 천하게 살겠다는 의미의 ‘빈천거’는 ‘은’과 닿아 있다. ‘은’ 역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인 ‘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TIP>

고전 시가는 낯선 단어와 한자어가 많아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어려운 단어는 모두 설명을 해 주므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화자의 상황, 처지, 태도를 먼저 파

악한 후 어떤 소재와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면 현대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8. <답> ⑤

<정답률> 81%

<정답 풀이>

⑤ ‘회보미방’은 권호문을 조정에 나오게 하려는 설득의 이유이므로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대답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 효 뿐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이 화자가 추구한 삶의 덕목이라 볼 수 있다.

② <보기>의 설명을 통해 과거에 급제하는 것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께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급한 마음에 십년간 허둥지둥 한 것은 급제를 통해 충효를 이루려 한 화자의 처지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③ ‘행장유도하니’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도를 행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기>의 유교적 출처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통해 화자가 조정의 천거를 매번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세 이후 화자는 ‘병들고 늙은’이라는 이유로 벼슬길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려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TIP>

외적 준거인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어긋남이 없어야 정답이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지문의 구절을 이해했을 때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니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19. <답> ③

<정답률> 92%

<정답 풀이>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 드러나는 장사 나간 어머니를 추운 골방에서 기다리던 어린 오누이의 모습은 행복감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해질녘’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어머니의 힘든 삶의 터전인 생어물전이라는 공간과 호응하여 하강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② 팔리지 않은 생선의 눈빛을, 화자의 가족은 얻을 수 없는 반짝이는 동전과 결합하여 어머니가 가난함에 대해 느꼈던 한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 구체적인 공간인 진주 남강을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어머니의 처지를 보다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⑤ 달빛 비친 옹기가 반짝거리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연상시키고 있다.

<TIP>

시어가 시의 이미지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시어가 주는 상승 또는 하강, 따뜻함과 차가움, 밝음과 어두움 등의 이미지가 시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시어가 가진 이미지는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되므로 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마다 적용하면서 해석해 보자.

20. <답> ③

<정답률> 80%

<정답 풀이>

③ ‘모음, ㄴ, ㄹ, ㅁ, ㅇ’ 등 울림소리로 구성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리듬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머니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음에’(1수), ‘세월이’(2수)처럼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통일된 글자 수를 반복(음수율)하여 얻은 ‘외적 규율’에 해당한다.

② <보기>에 의하면 종장의 둘째 음보가 첫 음보보다 길게 하는 것은 규율을 따르는 것이다.

④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는 선지의 설명은 시 전체 분위기에 호응하지 않는다.

⑤ 쉽표의 반복은 고전시가에서 중시하던 ‘따라야 할 규율(외적 규율)’이 없어지고, 이를 대신하여 현대시에서 내적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쉽표의 반복을 고전 시가 리듬 형성 요소의 계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TIP>

문학 이론을 참고하여 두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외적 준거를 주고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된다.

※ 본 해설 자료는 홍보용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20번까지만 제공됩니다. 21번부터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카데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모든 불법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캡처되고 있습니다.

등급컷

등급	원점수
1	97
2	92
3	85
4	76
5	62
6	42
7	25
8	17